

거주자참여에 의한 코하우징 디자인에 대한 연구

-덴마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최 정 신 (가톨릭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한 주 희*(가톨릭 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전공 박사과정)

주거공간은 사회여건의 변화, 기술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그 모습이 변한다. 인구구조, 가족구조, 산업구조, 소득상황 등등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점차 다변화되어 가는 주생활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주택계획에 있어 기존의 설계자 중심의 설계에서 거주자를 참여시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생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여 주거단지를 구성하고 생활하는 선진국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대안' 으로서의 코하우징에 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불어 사는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서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택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새로운 주거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1) 거주자 참여의 필요성 (2) 코하우징의 개념과 사례 조사 (3) 향후 국내 코하우징 디자인 방향의 검토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문헌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연구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 거주자 참여의 필요성 - 코하우징 디자인에 있어 거주자의 참여는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들은 주거단지 개발 계획과 설계 과정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주자들의 참여는 참가자들에게 공유된 내포된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더욱이 거주자들은 참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디자인, 시공, 운용과 관리의 각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거주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공유한다.

(2) 코하우징의 개념과 사례조사 - 코하우징은 도시나 교외지역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모든 거주자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존성, 그리고 협동을 강조하는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덴마크와 미국의 코하우징과 일본 코하우징은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미국의 코하우징과 달리, 일본에서는 수요자참가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인 co-operative방식이 더 많다. 또한 코하우징의 주요 공동활동인 공동식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공동생활실을 두고는 있지만 공동취사는 하지 않는다.

(3) 향후 국내 코하우징 디자인 방향의 검토 - 현재로서는 국내의 동호인주택이 코하우징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코하우징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및 조합아파트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동호인주택과 같이 미리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미래의 주민집단을 결성하고 건축가와의 긴밀한 협동하에 구체적인 단지계획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